

蒙古文法書資料(其三)

Jirügen-ü tolta Sutur Orosiba 『心精演義』

崔 鶴 根*

序

筆者는 일찌기 蒙古人이 蒙古語를 母語로 하는 蒙古人들을 爲해서 著述한 「蒙古語 書寫法과 그 讀法 및 文法」에 關한 文獻을 蒐集한 일이 있었고, 그리고 그中 二篇은 이미 發表紹介한 바 있었다.

即 原名 “mongyol üsüg-ün yoson-i sayidur nomlaγsan kelen-ü čimeg kemekü orosiba”(蒙古文字의 書式樣式을 詳細히 講論한 言語의 修飾)을 “言語의 修飾”이라고 題한 蒙古文法書에 對해서”라고 題해서 「국어국문학」(No. 74 ; 1977. 6)에 發表한 바 있었고, 또 그 다음에 原名 “mongyol üsüg-ün yoson-i todorqayilan γarγaγsan altan toli kemekü orosiba”(蒙古文字의 書式樣式을 明瞭하게 說明한 金鑑)을 “金鑑”이라고 題한 蒙古文法書에 對해서”라고 題해서 「冠岳語文」(No. 4 ; 1979. 12)에 發表한 바 있었다.

따라서 이번에 發表紹介하고자 하는 原名 “jirügen-ü tolta sutur orosiba”(心臟의 筋書)는 第三次로 되겠는데, 여기에 그 書名이 그대로 「心臟의 筋書」는 아무래도 適當한 題名이랄 수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筆者의 任意로 「心精演義」라고 改題했다.

생각컨데, 最初의 著者는 言語란 心臟에서 올어나오는 것이고, 그 가장 重要한 部分은 또한 「心臟의 筋」이기 때문에 蒙古語 및 蒙古文字는

* 국어국문학과 교수.

蒙古人에게 가장 重要하다는 뜻으로 “jirügen-ü tolta”로 題名했던 것 같다. 따라서 著者の 그 意圖함을 參酌함이 當然하기에 「心精演義」로 題한 바이다.

本著 第一葉 第9行에서 13行까지에는 「여기에 蒙古文字를 敎示하기 爲해서 čoyis kii gündi ĩir 至聖이, 그가 編作한 「心精演義」를 敎示할 때에 三章으로 나누었다.」라는 記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以上の 文章에서 두 가지 事實을 發見할 수 있다. 卽

1) 本「心精演義」의 編作者는 čoyis kii gündi ĩir이다.

2) 그러나 이 책을 記錄한 사람은 原編作者는 아니었고 다른 사람이었다. 卽 그 理由는 čoyis kii gündi ĩir 다음에 “degetü boyda”(至聖) 또는 “boyda”(聖) 등이 冠해 있는데, 編作者自身이 스스로 自己 이름에 「至聖」이니, 「聖」字를 冠했으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또 그 編作者의 이름에 關해서 “kelen-ü čimeg”(言語의 修飾)에 依하면, 그 第二葉에

『各 蒙古文字는 어떠한 사람이, 어느 地方에서, 어느 때에 創製한 것인가 하면, 위거러트(ügeled)의 王 “guwa dan”(郭丹) 時代에 saskiy-a(薩斯迦) 地方의 學者(bandida) “kun dke rkial mčan tan”이 涼州城에서 第四回 rab biong의 癸卯年에 編制한 것이다. 그때부터 지금 道光八年 戊子에 이르기까지 五百八十五年이 되었다.』고 記錄하고 있다.

따라서 「心精演義」의 “čoyis kii gündi ĩir”와 「言語의 修飾」의 “kun dke rkial mčan tan”과는 그 發音上 相當한 差異가 있기 때문에 同一人이라고는 斷定하기 어렵다.

또 本「心精演義」는 實은 後代인 淸의 康熙皇帝(1662~1772)와 雍正皇帝(1722~1735)代에까지 記錄이 있는데, 따라서 우리는 이 “jirügen-ü tolta”는 淸 雍正帝時代(1722~1735)에 著述된 것으로 斷定할 수 있으며, 그 著者도 또한 “čoyis kii gündi ĩir”나 “kun dke rkial mčan tan”도 아닌 第三者라고 믿어진다.

前記「言語의 修飾」에 依하면,

『ügelet의 王 guwa dan 時代に saskiy-a bandida “kun dke rkial mčan tan”이 涼州城에서 第四 rab biong의 癸卯年에 編制한 것이다. 그때부터 지금 道先의 第八戌子에 이르기까지 五百八十五年이 되었다.』고 記錄하고 있으니, “kun dke rkial mčan tan”은 西紀 1243年에 蒙古字를 編制한 것이 되고, 또 本「心精演義」에도 第三葉(4行~5行)에는 『sasky-a bandida “gun tege-e rkial mčan”이란 人名이 나오고, 이는 元朝 第五代 世宗 忽必來汗의 第七弟 guwa dan(廓丹) 時代이며, 이때에 그는 『蒙古國에 어떠한 文字로써 軸佐할 수 있을 것인가 하고 初저 녁부터 始作하여 이른 아침까지 籌思할 때에 한 婦人이 背(背) 위에 장 작나무를 지고 와서 拜禮叩頭하니 그와 같은 모습으로 蒙古國의 文字를 주격(窟) 모양으로 男性, 女性, 中性의 세가지, 即「強」, 「弱」, 「平」의 三種으로 編製한 것이다.』(第四葉 16行~25行)이라 記錄되어 있다. 그러나 그때에 그가 編製한 蒙古文字는 a, e, i; na, ne, ni; ba, be, bi; 等等의 그야말로, 一列이 「強, 弱, 平」의 三字로만 形成된 文字이었다.

이것이 蒙古에 最初의 文字가 發生한 事實이고, 第二次로는 忽必來汗 時代に pagsb-a blam-a에 依한 所謂 四角形의 pagsb-a 文字이다(第七葉 第16行~19行까지 參照).

第三次 蒙古文字는 元朝 第七代 武宗 Külüg 汗時代(1308~1311)로 sasky-a blam-a čoyis kii gündi ĩri에 依한 蒙古文字의 編製이다.

그것은 üigür 文字를 基礎로 하고, 또 saskiy-a bandida가 創製한 文字에다가 ㅍ리를 가진 文字等 多數를 增加하여 蒙古國의 言語로 佛經을 번역할 수 있게 새로 最初로 創製한 것이다(第八葉, 第9行~13行 參照)

이 때의 蒙古文字는 所謂「強, 弱, 平」의 [a, e, i] 三字에다가 [a 演生 o, u]와 [e 演生 ö, ü]으로, 所謂 演生法을 使用해서 ㅍ의 [o, u, ö, ü]를 增加시키고 一列七字 [a, e, i, o, u, ö, ü]를 完成시키고, 또 여기에 子音이 加해서 [na, ne, ni, no, nu, nö, nü] 等等으로 增加시켰기 때문에 完

全하게 蒙古語를 書寫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即 *čoyis kii gūndi tir*가 著述한 “*jirügen-ü tolta*” 初版本이고, 雍正帝時代(1722~1735). 再版된 本著는 初版本 “*jirügen-ü tolta*”의 內容에 外來音を 表記한 *pa*(𑖑), *ša*(𑖑), *īa*(𑖑) 등을 補充增補한 것이며, 이는 “*saw-a ra saw-a ti*”가 著述한 것으로 믿어지는데(第九葉: 24行~25行 參照), 確實하지는 못하다.

그러나 本著以前에 이미 失名氏에 依해서 “*čoyis kii gūndi tir*”의 初版本 “*jirügen-ü tolta*”를 解義해서 著述한 “*sin-e jirügen-ü tolta*” 「新心精演義」가 있었다고 傳하나, 그 眞僞는 알 수 없고, 오늘날은 그 原本(初版本)과 함께 傳來하지 않는다.

또 이 外에 西土地方(*barayun rajar*)의 *monglam*(또는 *muwa lamu*) *blam-a*에 依해서 著述된 “*jirügen-ü tolta yin tayilburi oytarpoi yin mati*”(心情演義의 註解書인 天理) (「金鑑」一葉 4行~7行 參照)가 있다.

本書는 原來 著者에 依해서 「章, 節, 項」 등으로 區分, 敘述된 것으로 믿어지나, 그 當時에는 蒙古語에 「章, 節, 項」이라는 語彙가 없었던 模樣으로, 모두를 區分없이 *angq-a*(第一), *qoyatuγar*(第二), *γutuγar*(第三), *döbtüger*(第四), *tabtuγar*(第五), *jiryotuγar*(第六), *dolotuγar*(第七)年으로만 記錄되어 있는 것을 譯者가 順序上 「章」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章」으로, 또 「節」, 「項」 등을 가려서 記入했다.

이렇게 「章, 節, 項」 등을 가려서 記入하려면, 讀者에게 좀더 分明하게 理解할 수 있는 方式으로 번역·記錄하는 方式도 있기에, 그 方式을 取할까 했으나, 譯者는 어디까지나 原本의 樣式을 重要視하고, 그 行等을 原本 그대로 表示하기 爲해서 「章, 節, 項」 등이 分明히 눈에 띄지는 못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原本 그대로의 樣式과 原來의 行數를 分明히 하면서도 「章, 節, 項」 등을 밝힐대로 밝혀 놓았으니 얼마간 讀者에게 便宜하리라고 생각된다.

또한 原書의 術語問題와 文法的인 解釋과 그 整理하고 叙述하는 方式이 問題가 많았으나, 本原書가 距今 二百五十餘年前의 著述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無理가 아니었다고 생각되었다. 따라서 原文과 그 文意를 損傷함이 없이 譯者가 若干을 變更시킨 곳도 있다.

끝으로 紙面關係와 時間關係로 여기에 全文을 실리지 못함을 아쉬워 하면서 後半部는 後日을 期하기로 한다.

〔一〕¹⁾

- (1)²⁾ ketürkei oron daki amitan-i, gem-ün
現世에 있는 衆生을 罪業의
- (2) ündüsü qoyar tütger eče, kemjij-e
根源인 二大 支障에서부터(救하신)³⁾ 限量
- (3) ügei tonilyaγči manju siri,⁴⁾ ketürkei
없는 救濟者 曼殊 習禮여, 非常한
- (4) uqayan-i üggün soyorq-a ※ ilayoγsad-un
智覺을 下賜 하소서! 勝利者들中的
- (5) yaγča keu eke sw-a ra sw-a di⁵⁾; ilγal
唯一한 文殊菩薩이여! 區別
- (6) ügei doton-a-tu γatan-a-tu merged-tür;
없이 內 外에 있는 智者들에게
- (7) ilangqui uqayan-i onon nemegülüged;
特別한 智慧를 了解하며 增加시키고
- (8) ilγataši ügei ükin tengri barin
區分 없이 天神에게 奉仕하게
- (9) soyorq-a ※
하소서!

1) 〔一〕, 〔二〕 등은 原書의 葉數를 表示하고.

2) (1), (2), (3) 등은 原書 每葉의 行數를 表示.

3) 이 部分의 原文은 漏落된 듯.

4) 「妙音佛母」를 意味함.

5) 「文殊菩薩」의 tübed文字의 記錄.

- (9) *ende mongγol üsüg-ün*
여기에 蒙古 文字 冊
- (10) *nomlal-a čoyis kii gūndi īir*⁶⁾
敎示하기 爲해서
- (11) *degetü boγda tere ber jokiyaysan*
至 聖이, 그 가 編作한
- (12) *jirügen-ü tolta gi nomlaqui dur*
〔心精演義〕 冊 敎示할 때에
- (13) *γurban*⁷⁾; *alin čay tur γaruγsan uγ kiged* ;
三章으로 나누었었다. (即 그 第一章은) 어느 時期에 發生했는
가의 起原과
- (14) *üsüg-ün ilγal ba, maqabud-un ilγal*
그 第二章은 文字의 區別과, 第三章은 그 行(成分)의
- (15) *bolai* ; *angq-a*⁷⁾ *dur γurban*⁷⁾, *mongγol dur*
區別이다. 第一章에는 三節로 나누는데, ⊕ 蒙古에
- (16) *šasin γaruγsan čay kiged, tegüni mongrol dur*,
佛敎가 發生한 時期와 ⊖ 이것을 蒙古에
- (17) *telgeregülügen ba mongγol üsüg iyer*
傳播시킨것 과 ⊖ 蒙古 文字 로써
- (18) *nom orčiyoloγsan bolai* ; *angq-a*⁷⁾ *anu*,
佛經을 翻譯한 것 等の 第三節이다. 그 第一節은
- (19) *boγda činggis qayan anu sa ski-ya yin*
聖 成吉思 汗 이 薩 斯迦地方의
- (20) *blam-a rīi bīun bsuyid namis rīi*⁸⁾
喇嘛
- (21) *mün degetü blam-a tegün dūr elči*
本 尊 喇嘛 그 에게 使者를

6) 本書 “jirügen-ü tolta sutur”를 著述한 人名, tübed文字로 記錄.

7) 本文에는 記錄이 없으나, 이 境遇의 數字는 「章, 節, 項」等の 記錄이라 보고, 對譯者 自意로 記入했음.

8) 蒙古地方에 最初로 佛敎를 傳播했다고 傳해 오는 tübed人 喇嘛僧侶의 이름.

- (22) jaruju jarliy bayolyar-un, minu ene
 派遣하여 降 命하시되, 『나의 現在』
- (23) ba qoyitu gi medekü blam-a či bol ;
 와 未來 를 알고 있을 喇嘛는 당신이다.
- (24) bi šasin-u üglige yin ejen bolju dörö
 나는 佛教의 施 主 되어 政治와
- (25) šasin-i qooslay-a ; teyimü yin tula
 佛教를 統合하고자 한다. 그렇기 때문에
- (26) tübed oron daki toyin quwaray bügüde gi
 土伯特 地方에 있는 僧 侶 全部 를
- (27) alban ača γaryaba kemegsen dür rīi⁹⁾
 貢賦 에서 免除했다』고 말하니
- (28) btun bsuyid namis rīi mün ber
 本人 이
- (29) činu jarliy boloγsan yosoγar bi
 『殿下가 諭示하신 바 그대로 나는
- (30) čidayṣaγar kičiyesügei kemelüge ;
 遵行하면서 努力하겠읍니다』라고 말했다.

〔二〕

- (1) tere čay tur mongγol dur šasin ese
 그 때에는 蒙古 에 佛教가
- (2) telgerebesü ber šasin-u kündüel γaruγsan
 發展하지 못했었으나, 佛教의 尊崇이 發生하기
- (3) bolai ; qoyatuγar tur qoyar ; müngke⁹⁾
 始作했다. 第二節에는 二項이 있으니, 第一項으로 蒙哥
- (4) qaγan-u üy-e dür bariγsan kiged,
 汗 時代에 發展한 것과

9) “müngke qaγan”은 元朝 第四代 憲宗의 蒙古名. 西紀 1251~1259年間 汗位에 있었다. 「蒙古諸汗 源流의 寶綱」(蒙古源流)에는 「蒙克汗은 丁卯年生, 四十六歲時의 壬子年에 汗位에 오르고, 八年이 되어서 五十四歲時의 己未年에 歿했다.」로 記錄. 同 p.116 參照.

- (5) qubilai sečen qayan-u¹⁰⁾ üy-e dür
第二項으로 忽必來 徹辰汗의 時代에
- (6) bariysan bolai ; angq-a anu, müngke
發展시킨 것이다. 第一項은 蒙哥
- (7) qayan-u üy-e dür tangyud ača īal
汗의 時代에 唐古特에서부터 찰
- (8) ba¹²⁾ yin blam-a kirma tus ksum mbiĵa¹³⁾
바의 喇嘛인
- (9) ba terigüden-i takil-un oron bolyaju
等을 祭祀하는 場所를 設定하여
- (10) šasin dörö qooslabai ; teyin atala
佛敎와 政治를 統合했다. 그렇지만
- (11) tegün-ü üy-e dür mongyol kelen dür
그 時代에는 蒙古語에는
- (12) nom ese ɣaruysan bolai ; qoyatuɣar
佛經이 아직 發生하지 못했었다. 第二項으로
- (13) anu gubilai sečen qayan-u üy-e dür
는 忽必來 徹辰汗의 時代에
- (14) kirma tus ksum mbiĵa ba riĵi qubilyan¹⁴⁾
喇嘛
- (15) terigüden-i üjegülbesü ber, qayan
等을 例를 들어 보면, 汗과
- (16) blam-a üy-e qoyayola amitan-u
喇嘛 時代에 두사람은 人生
- (17) üjegtel-ün iltar-a ese jokiltuju
觀의 見解가 一致하지 안해서

10) “qubilai sečen qayan” 元朝 第五代 世宗의 蒙古名으로 1260~1294年間 汗位에 있었다. qubilai sečen汗은 乙亥年生이며, 四十六歲時의 庚申年(1260)에 汗位에 오르므로, 三十六年間 汗位에 在位後 八十二歲時의 庚申年에 昇天했다. 同上 pp.116~119 參照.

11) “tangyud”(唐古特)는 ügür(維吾爾)를 指稱한다고 本書에 記錄되어 있다.

12) tangyud語로서 喇嘛의 地位를 表示하는 名稱.

13) tangyud의 喇嘛이름.

14) “qubilran lama”는 「神의 化身인 喇嘛」로 解釋되어서 「至尊」을 意味함.

- (18) blam-a ba üglige yin eĵen-ü
 喇嘛 와 施 主의
 (19) bariltuĵ-a ese bolbai ; tende eĉe
 連繫가 없게 되었다. 그때부터
 (20) qubilai seĉen qayan-u ĵirĵotuĵar
 忽必來 徹辰 汗의 第六(여섯째)
 (21) degüü tuwa rta¹⁵⁾ kiged dolotuĵar
 弟(아우) 道 爾達 와 第七(일곱째)
 (22) degüü guwa dan¹⁶⁾ qoyayola eke qaton
 弟(아우) 廓 丹 兩人이 그 어머니 哈屯
 (23) iyan ügen dūr oroĵu qamoĵ ulus
 으로 하여금 말을 듣게 하여 모든 國民들
 (24) iyan abuyad ; si ling ĵaĵar-un ĵegün
 을 引率하고, 四寧 地方의 東(左)
 (25) qoyitu šira tala dūr nutuĵlaĵu
 北(後)方「黃 甸」에로 移住하여
 (26) kerem dotoraki liyang čuwan kemekü
 長城 內에 있는 涼 川이라 稱하고
 (27) edüge inu liyang ĵeu kemen altarasiĵsan
 現在에는 涼 州 라고 稱하는
 (28) ĵaĵar-i eĵeleged orosibai ; tende eĉe
 地方을 占領하고 進入했다. 그때부터
 (29) tuwa rta, guwa dan, qoyar noyan
 道 爾達, 廓 丹 二人의 諾延이
 (30) ĵubeleltür-ün, manu ebüge čingĵis
 相議하고, 우리의 祖上인 成吉思

〔三〕

- (1) boĵda yin üy-e dūr sa skiy-a yin
 聖祖 의 時代 에 薩 斯迦 의

15) 同上「蒙古源流」에는 “oyimayod-un doorda darqan”(韋瑒郭特의 道爾多達爾罕)이라 記錄됨. _____ 同上書 p. 115, 6行 參照.

16) 同上「蒙古源流」에는 “Kuwatan qayan”(庫騰汗)이라 記錄됨 _____ 同上 p. 116 參照.

- (2) blam-a rti b̄iun bsuyid namis r̄i
喇嘛
- (3) m̄un gi dalda ēce blam-a bariṡsan
本人 을 隱匿處에서 喇嘛를 찾았던
- (4) bayinam ; edüge tegünü ači sa skiy-a
것이다. 이제 그의 姪인 薩斯迦
- (5) bandida gun tege-e rkial m̄ian kemekü
班第達 이라 稱하는
- (6) ber enedkeg-ün dumtatu oron dur
사람이 印度 의 中央 地方 에
- (7) ügede bolju ; tere ud-un ḡayiqaysan
行次하여, 그 地方들의 靈妙한
- (8) bandida luy-a šasin iyan meljige
班第達 와 佛敎에 關해서 討論을
- (9) talbiju, yerü yin dörben juil uqayan
걸어서 通常의 四種의 智慧
- (10) iyar temečiltüged tere ud kirtabai ;
로써 함께 競論하고 그 들은 失敗했다.
- (11) tende ēce tübed-ün oron dur ügede
그 後에 土伯特 地方 에 行次
- (12) bolju ireged altarsiṡsan-i sonosču
하여 와서 有名하다는 消息을 듣고
- (13) bür-ün, tuwa rta noyan čiregleju
道爾達 諾延은 行兵하여
- (14) jalaqui dur guwa dan-i ilegegsen jarliḡ
招待할 때에 郭 丹을 보내고, 諭旨
- (15) anu bandida blam-a č̄i kügsirebe
하되 [班第達 喇嘛 당신은 年老하게 되었다고
- (16) kemen ulü irekü bologujai ; ta boyda
하고 오지 않을까 두렵다. 貴下들이 聖스러운
- (17) ner-e kemebesü, šasin ba amitan-u tusa gi
名聲을 말한다면, 佛敎 와 衆生들의 利益을

- (18) *sedkiqu bülüge ; ker be či ese*
생각하는 것이었다. 萬若 당신이
- (19) *irebesü, bi dan cerig ilegeju*
오지 않는다면, 나는 많은 軍隊를 보내서
- (20) *amitan-i jobayabasu činu sanay-a*
衆生을 不安하게 한다면 당신의 생각이
- (21) *ülü čilekü ajiyam ; teyin bügesü*
괴롭지 않게 되겠는가? 그렇지만
- (22) *irebesü jokiqu bayinam kemekü terigüden*
오게 된다면 마땅한 일이다』라는 等의
- (23) *jarliḡ-un bičig gi duwa rta noyan*
諭示의 書狀을 道爾達 諾延이
- (24) *abču sa skiy-a' yin ɣajar-a gürčü*
가지고 薩斯迦 地方에 到着하여
- (25) *jarliḡ bičig gi bariḡsan dur ;*
諭示의 書狀을 건너주 니
- (26) *sa skiy-a bandida yekeda bayarlaḡu*
薩 斯迦 班第達는 크게 좋아하고,
- (27) *boḡda bsuyid namis rti¹⁷⁾ mün yin*
聖 『本人의
- (28) *boḡoḡ üjegülügsen čaḡ ene mün*
豫言이 實現했던 때가 이와 같은것
- (29) *bülüge kemen sedkiḡü ügede bolqu gi*
이로다』라고 생각하여 行次할 것을
- (30) *aman abubai ; boḡoḡ üjegülügsen inu*
誓約했다. 豫言이 實現했다는 것은

[四]

- (1) *rḡi bḡun bsuyid namis rḡi¹⁷⁾ mün yin*
本人의

17) 同上「蒙古源流」에는 “saskiy-a gūngge rkialtan”으로 記錄. 同上 p. 115, 4行 參照.

- (2) Jarliγ ača ; qoyitu čay dorona
諭示에서 『後 日에 東
- (3) jüg eče qarčayai malay-a tu yaqai
方에서 매(鷹) 帽子를 쓰고, 돼지
- (4) qangsiyar γutul tu üglige yin
코(鼻)의 신을신은 施
- (5) ejen irekü bülüge ; tere čay tur
主가 올 것이다. 그 때 에는
- (6) či düülel ügei odbasu ; šasin
당신이 틀림없이 떠난다면 佛敎와
- (7) amitan-u tusa yekede bolqu buyu¹⁸ ;
衆生의 利益에 크게 貢獻할 것이다.』
- (8) kemeksen bolai ; tendče mordaǰu liyany
라고 말했었다. 그때부터 出發하여 涼
- (9) joo γajar-a kürčü ireküi dūr
州 地方에 到着해 올 때에
- (10) guwa dan noyan yekede bayarlašǰu, tabiy
廓 丹 諾延은 크게 좋아하고, 齊戒
- (11) kündülel uiledüged, kii wačir-un
沐浴을 行하고, 喜 金剛의
- (12) abišiy abču niyuča tarni yin
洗禮를 받고, 秘語 다라니
- (13) külgen dūr orobai ; sa skiy-a bandida
乘에 進入했다. 薩 斯迦 班第達는
- (14) tere γajar-a doloγan ĵil kürtal-a
그 地方에 七 年間에 이르도록
- (15) šasin amitan-u tusa gi sayitur jokiyabai ;
佛敎와 衆生의 利益을 훌륭히 組成했다.
- (16) tere čay tur sa skiy-a bandida mongγol
그 때 에 薩 斯迦 班第達는 蒙古

18) 이 插話의 史實은 亦是同上 p. 115의 12行~17行 參照.

- (17) ulus tur ali üsüg iyer tusalaqu
國 에 어떠한 文字로써 輔佐할 수
- (18) bolqu kemen süni tuytam bariju erte
있을 것인가 하고 저녁 初부터서 始作하여 이른
- (19) manayar belegleküi dür nigen ekener kümün
아침까지 籌思할 때에, 한 婦 人 이
- (20) müren degereben kederge modon-i bariju
등(背) 위에는 장작 나무를 지고
- (21) ireged mürgübesü terekü beleg iyer
와서 拜禮 叩頭하니, 그와 같은 모습으로
- (22) mongyol ulus-un üsüg-i kedergen-ü
蒙古 國의 文字를 주걱(篋)
- (23) türsü ber inu ere eme ersü ɣurban
모양 으로 男性, 女性, 中性의 세 가지, 即
- (24) čingq-a kiged kündei ba saɣarmay
「強」 과 「弱」 과 「平」
- (25) ɣurban iyar jokiyaɣsan bolai ; üsüg
三種 으로 編製한 것이다. 文字
- (26) inu a, e, i ; na, ne, ni ; ba, be, bi ;
는
- (27) ka, ke, ki ; ga, ge, gi ; ma, me, mi ; la, le, li ;
- (28) ra, re, ri ; sa, se, si ; da, de, di ; ta, te,
- (29) ti ; ja, je, ji ; ča, če, či ; ya, ye, yi ;
- (30) wa, we ; edeger bolai ; teyin atala čay
等과 같다. 그러는 동안에 時期가

[五]

- (1) ese kürügsen buyu uu ; nügüčel ese
아직 到達하지 안했던가? 演生字를 아직
- (2) ɣaruɣsan-u tula mongyol-un kelen iyer nom
發生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蒙古 語 로서 佛經을
- (3) orčiyoloɣsan ügei bayinam ; tende eče
翻譯한 것이 없었던 것이다. 그때부터

- (4) sa skiy-a bandida qubilyan bey-e gi
薩 斯迦 班第達의 變化 法身 을
- (5) nom-un aḡar-a qoriyaḡsan-u qoyina ※
神靈의 所在에 收藏한 後에(沒後에)

第二節

- (6) qubilai sečen qaḡan elči jaroḡju
忽必來 徹辰 汗이 使臣을 派遣하여
- (7) kpakspa (pagspa) blama dayotabai¹⁹⁾; kpakspa
怕克思巴 喇嘛를 聘招했다. 怕克思巴
- (8) blama qaḡan dur baralqaqui dur ;
喇嘛가 汗 에게 謁見한, 즉
- (9) qaḡan nom-un jarliy terigüden-i jiyöči
汗은 佛經의 御旨 等을 通譯者
- (10) ber kpakspa blama dur baḡolḡaḡsan
로 하여금 怕克思巴 喇嘛에게 下旨했을
- (11) dur kpakspa blama türbel ügei
때에 怕克思巴 喇嘛는 支障없이
- (12) ayiladqaqui dur qaḡan yekede bayarlaḡu
應告하 니, 汗은 크게 기뻐하여
- (13) tangḡud tur elči jaroḡqu dur biḡiḡu
唐古特 에로 使臣을 派遣하고, 『聰明하며
- (14) daḡiḡu čoboḡ-a nigen bandi olba
經驗있고 善辯하는 한 班第를 얻었다』고
- (15) kemelüge ; tere čaḡ tur qaḡan-u eḡi
말했다. 그 때에 汗의 本
- (16) qaton qaḡan-a üčir-ün manu ʿal
夫人이 汗에게 告하되 『우리 찰
- 19) 이 “pagsb-a” 喇嘛에 關한 史實은 同上, p.117 2行에 “saskiy-a bandida 의 從弟 madi dhuwataw-a(瑪迪 都幹咱)”라는 이름으로 記錄되어 있고, 同 pp.117~119까지 이 原書와 大體로 同一한 史實을 記錄하고 있다. 또 p.119, 4行~6行까지에는, 『西藏말로 “bmsum čoyiji rkialbuum blam-a paksba”라고 稱하고, 中國말로는 “三省大王國師”, 蒙古말로는 “三地方에 있는 經의 汗 優秀布喇嘛”라는 稱號를 推戴했다.』고 記錄되어 있다.

- (17) *pa blama nar olan bügesü ber ; ene*
 바 喇嘛 들이 많지만, 이
- (18) *učügen bandi yin ertem medü blam-a*
 小 班第 의 才德과 같은 喇嘛
- (19) *nar ügei genem ; teyimu yin tula qayan*
 等은 없다고 합니다. 그럼으로 汗은
- (20) *takiju kelelčijü yeke blama bolγabasu*
 翻覆해서 말씀하셔서 大 喇嘛로任하신다면
- (21) *jokistei sedkiqū bi ; tendeče qayan*
 道理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겠나이다. 그때부터 汗은
- (22) *basa takiju kpakspa blama qoyayola*
 다시 반복해서 怕克思巴 喇嘛와 二人이
- (23) *nom čidig terigüden-i olan kelelčijü*
 經 史에 關한 것 等을 많이 談論하여
- (24) *kpakspa blama yin mergen-i ayiladču ;*
 怕克思巴 喇嘛 의 慧智를 確認하고,
- (25) *yeke blama nar-un jerge dūr oroγolbai ;*
 大 喇嘛 等の 階級에 進及시켰다.
- (26) *tendeče eši qaton qayan-a takiju ;*
 그後에 本 夫人은 汗에게 또다시
- (27) *ayiladqar-un ; ial pa yin blama nar*
 告하되, 『“찰 바”의 喇嘛 들과
- (28) *kelelčigsen inu ; ene kpakspa blama*
 談論한 것 은, 『이 怕克思巴 喇嘛로
- (29) *kemebesü darni sutur-un yoson dur*
 말할것같으면 咒文 經典의 禪理에
- (30) *mergen büged ; ilangquy-a sa skiy-a yin*
 通達하고, 特別히 薩 斯迦 의

[六]

- (1) *yoson-u kii wačir-un abisiγ bui yin*
 道理의 喜 金剛의 洗禮가 있기

- (2) tula ; qayan tegüni abubasu jokistei
때문에 汗은 그것을 받는다면 道理있는 일이
- (3) buyu uu ; kemen ayiladqaysan dur qayan
아니겠나이까』라고 告하니, 汗은
- (4) jarliy bolor-un ; či orida ab ;
諭示하되, 『당신이 먼저 받으시라 !
- (5) arouqan bolbasu bi abuy-a kemelüge ;
그래서 잘 되었다면 朕도 받으리이다』라고 말했다.
- (6) tendeče qaton tanggariy sayidur
그때부터 哈屯(夫人)은 戒律을 잘
- (7) sakiju čidaqu qorin dörben kümün-i
지키는 能力있는 二十四 名을
- (8) daɣaɣolju kii wačir-un abisiy-i
隨行시키고 喜 金剛의 洗禮를
- (9) abubai ; qoyina qayan qaton-a jarliy
받았다. 그 後에 汗이 哈屯(夫人)에게 諭示
- (10) bolor-un ; činu blama yayun-i
하되, 『당신의 喇嘛는 무엇을
- (11) nomlaba kemegsen dür ; eši qaton
講經했는가?』라고 말하니 本 哈屯(夫人)은
- (12) učir-ün, yaɣučin-u kümün usoldaɣsan
告하되, 『通譯하는 사람이 錯誤로
- (13) iyar bi olan-i ese toɣdayabai ; minu
씨 小人은 많은 것을 記憶하지 못하나이다. 小人의
- (14) toɣdayaɣsan anu baɣsi yin jarliy ača
記憶하는 것 은 스승 의 教示 에서
- (15) ülü dabaqu ; boydhi sedkil egüsgekü ;
넘지 못하고, 聖善提 心을 勉勵하는 것이며,
- (16) tanggariy sanwar-i sakiqu ; ɣurban
誓約과 戒律를 嚴守하는 것이며, 三
- (17) erdeni gi kündülekü baɣsi aqalaqu
寶 를 尊敬할 스승을 敬畏할 것이며,

- (18) *šabi degülekü edüyigen bolai ; kemen*
 徒弟되는 者는 服從하는 것, 오직 이것 뿐이로소이다』라고
- (19) *üčigsen dür qayan jarliy bolor-un ;*
 告했기 때문에, 汗은 諭示하시되,
- (20) *teyimu bügesü bi nom sonosču ülü*
 『그렇다면 朕은 佛經을 들을 必要가
- (21) *bolqu bayinam gegsen dür ; qaton*
 없을 것 같다』고 말하니, 哈屯이
- (22) *üčir-ün ; yamulaqu ɣajar-a qayan*
 告하되, 『衙門 處에서는 汗이
aqalayad ; nom sonosču ba jüg
 尊貴하고, 佛經 들는 處所에
- (23) *sayoqui dur blam-a aqalayad tübed-ün*
 坐定할 때에는 喇嘛가 尊貴하며, 土伯特의
- (24) *kereg tür blama eče eši ügei ;*
 事務에 對해서는 喇嘛에게서 指示없고,
- (25) *qayan buu jokiy-a ; kitad mongyol-un*
 汗 또한 適合하지 않도다. 中國과 蒙古의
- (26) *kereg tür blama yaɣum-a jarliy*
 일에 對해서는 喇嘛는 雜言
- (27) *bolqu gi bayituyai ; kemegsen dür*
 하는 것을 中止하도록 하사이다.』라고 奏言하니,
- (28) *qayan jarliy bolor-un ; teyin bügesü*
 汗이 諭示하시되, 『그렇다면
- (29) *blama dur kelejü ene yosoyar bolbasu*
 喇嘛에게 말해서 이런 方式으로 한다면

〔七〕

- (1) *abisiɣ abuy-a kemelüge ; tendeče bla-*
 洗禮를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때에 喇
- (2) *ma dur ayiladqaqui dur kpakspa-*
 嘛에게 告하니, *paksba*(伯克思巴)

- (3) blama jarliγ bolor-un ; qaton-u ene
喇嘛는 諭示하되, 『哈屯의 이
- (4) ayiladyal kiged qaγan-u jarliγ boloγsan
告示 와 汗의 諭示 하신 것은
- (5) yeke γayiqaysan bayinam ; tende eče
대단히 驚異할만 하다. 그때부터
- (6) qubilai sečen qaγan tangγariγ sanwar-i
忽必來 徹辰 汗은 誓約과 戒律을
- (7) sakin čidayči qorin dörben kümün-i
守護 能力者 二十 四 名을
- (8) daγayolju kii wačir-un absiy-i
隨行시키고, 喜 金剛의 洗禮를
- (9) abču kpaksba blama gi blama
받고, 怕克思巴 喇嘛 를 喇嘛
- (10) baribai ; tende eče edüi tedüi boloγsan
待偶했다. 그때부터 조금 時間이 지난
- (11) qoyina qaγan kpaksba blama dur
後에 汗은 怕克思巴 喇嘛 에게
- (12) jarliγ bolor-un ; enedkeg kitad ulus
諭示 하되, 『印度와 中 國
- (13) tur über über-ün üsüg bui
에는 各 各 의 文字가 있다.
- (14) büged ; man-u mongγol ulus tur üsüg
그런데도 우리의 蒙古 國 에는 文字가
- (15) ügei yin tula ; či üsüg γaryaytun
없으니, 당신이 文字를 創製하라!』
- (16) kemen jarliγ boloγsan yosoγar kpaksba
라고 諭示하신 말씀대로 怕克思巴
- (17) blama mongγol-un dörbeljin üsüg
喇嘛가 蒙古의 四角 文字를
- (18) γaryaju mongγol-un bilig tei köbegüd-i
創製하여 蒙古의 聰明한 少年들을

- (19) *čoylayoloyad surγul kibeī ; tende eče*
 集合시키고 教授했다. 그 後에
- (20) *blama qaγan üy-e qoyayola naran saran*
 喇嘛와 汗의 時代に 二人이 해와 달
- (21) *medü qooslaju šasin dörö yoson-i*
 처럼 統合되어서 教 政의 禪理를
- (22) *yekede geyigülbei ;*
 크게 興盛시켰다.
γudaγar anu qayisan²⁰⁾
 第三節은 海山
- (23) *külüg qaγan-u üy-e dūr sa skiy-a yin*
 曲律克 汗 의 時代に 薩 斯迦 의
- (24) *blama čoyis kii gündi ĩir⁶⁾ tur*
 喇嘛 에게
- (25) *qayisan külüg qaγan jarliγ bolor-un*
 海山 曲律克 汗이 諭示하되
- (26) *burqan-u jarliγ nom-ud-i mongγol kelen*
 『佛 의 經 典들을 蒙古의 말
- (27) *iyar orčiyol kemegsen dūr blama*
 로써 翻譯하라!』고 下命하시니 喇嘛
- (28) *čoyis kii gündi ĩir⁶⁾ mongγol-un*
 는 『蒙古의
- (29) *dörbeljin üsüg edüge edüjer jig*
 四角 文字는 現在 edüjer jig
- (30) *kemen altarsiγsan teguber mongγol-un*
 이라고 稱名하는 그것으로써 蒙古

[八]

- (1) *kelen dūr nom orčiyolqu ese bolbai ;*
 語로서 佛經을 翻譯하는 것은 不可能 하나이다.』

20) 蒙古第七代 武宗의 蒙古名으로 1308~1311年間 汗位에 있었다.

同上 蒙古源流 p.121에 依하면 『“Külüg qaγan”은 辛巳年(1281)生, 二十八歲時의 戊申年(1308)에 汗位에 앉고, “Owada tar Kerel”이라 稱하는 通譯으로 하여금 모든 經咒文의 大部分을 翻譯시키고, 四年間 汗位에 在位 三十一歲時의 辛亥年(1311)에 歿했다.』라고 記錄하고 있다.

- (2) *yayun-u tula kemebesü qayisan külüg*
무슨 理由인가 할 것 같으면, 海山 曲律克
- (3) *qayan aça degegsi üigür-ün kelen iyer*
汗(時代) 그 以前에는 維吾爾 語 로써
- (4) *nom-i üjebesü ber ; mongyol-un kelen*
佛經을 읽을 수는 있었지만, 蒙古 語
- (5) *iyer ungsiqu busu bolai ; üigür*
로서는 읽을 수는 없었다. 維吾爾
- (6) *ulus kemebesü tere çay tur tangyud*
國이라고 하는 것은 그 時代에는 唐古特
- (7) *ulus-i üigür kemegsen bolai ; tendeče*
國을 維吾爾라고 말했었다. 그 後에
- (8) *çoyis kii gündi ĩir⁶⁾ manĭu širi*
가 曼殊 習禮
- (9) *dür jalbariju sa skiya bandida yin*
에게 祈禱하여 薩 斯迦 班第達 의
- (10) *rarıysan üsüg-ün deger-e segül tü*
創製한 文字에다가 꼬리를 가진
- (11) *üsüg terigüden olan-i nemejü mongyol*
文字 等 多數를 增加하여, 蒙古
- (12) *ulus-un kelen iyer nom-i orçiyolju*
國의 言語 로 佛經을 번역하여
- (13) *sin-e tuıtam rarıyabai ; teyin kemen*
새로 最初로 創製했다. 그래서
- (14) *çoyis kii gündi ĩir orçiyoloysan*
가 번역한
- (15) *banĭarakq-a²¹⁾ yin segül-ün silüglel eče ;*
의 꼬리 의 對韻에서
- (16) *oor mongyol-un üsüg iyer toyolıaju*
純 蒙古 文字로써 通曉시켜서

21) "bantarakq-a" 不明.

- (17) *ese boloysan iyar olan-a toyolyan jadan*
되지 않은 것을 大衆에게 通曉케 하고,
- (18) *nügüd iyen ču ; olangkida uigurčün*
이들 은 또한 通常에 維吾爾
- (19) *kelen iyer sonoson ajuju ※ tegünü qoyina*
語 로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 後에
- (20) *terigülegči tere qayun-u delekei yin*
統治者인 그 汗 이 天下 의
- (21) *ejen bolyan erke ügtegsen ; ded*
主上이 되게 해서 權限을 委任했던 次
- (22) *köbegün-ü yutayar üy-e dür inu*
子 의 第三 世代 에
- (23) *tenggečel ügei qayisan neretü döröju*
比類할 수 없는 海山이라 稱하는 분이 出生하였
- (24) *bürün ※ köbegün čay ačayan büged oridus*
었다. 年少 時代부터서 옛일
- (25) *tur küsigürkegsen-i külüg iyer iyen*
에 不滿足이었던것을 曲律克로 하여금
- (26) *ülüdkeju ; kür ulus-un ejen boljaytaju*
對照하게해서 群衆大國의 主上이 되게 하여
- (27) *bürin-e külüg qayan kemen altarsiysan*
國民大衆에게 曲律克 汗이라고 稱名하게 한 것은
- (28) *ken bügesü ※ unen uduridkuçi*
누구이던간에 眞正한 指導者와
- (29) *ügülegčid-ün naran ; očiraju čoyis*
講說者들의 날에 會見하여
- (30) *kii gündi tir⁶⁾ neretü kelemürči Lüge*
라 稱하는 通譯과 함께

〔九〕

- (1) *üye qoyar-un arɣ-a bilig-ün Kücün*
時代에 兩儀 陰陽의 方法과 智慧의 힘

- (2) *iyer* ; oor mongyol-un ayalaqu ber nom-i
으로 純 蒙古語의 發音으로써 佛經을
- (3) *telgeregüljürui* ※ *kemen nomlaysan medü*
傳播시켰었다. 라고 말했던 것 같
- (4) *bolai* ; *edüge inu mantuširi yin qubilyan*
다. 이제 는 曼殊習禮 의 化身인
- (5) *engke amuɣulang degetü*²²⁾ *qayan tere ber*
康 熙 皇帝가 그것 을
- (6) *čaγar-un qutuɣ tu qayan-u üy-e dūr*
察哈爾의 庫圖克圖 汗 의 時代 에
- (7) *orčiyoloysan mongyol bke-e kenjür-i*
翻譯시킨 蒙古의 甘珠爾經을
- (8) *ariyudqan sigüü kemen jarliy boloyсан*
『清淨하게 審査하라』하고 諭示한
- (9) *yosoγar sayıdur sigüjü keb bayiyoloγad*
대로 詳細히 審査해서 製版 刊行케하고,
- (10) *mongyol ulus tur erte eče ese boloyсан*
蒙 古 國 에 일찍부터 없었던
- (11) *nom-un üglige yin degetü bolyan jökıyabai* ;
佛經의 施惠 를 尊崇하게 해서 編纂發行했다.
- (12) *tendeče dötüger delekei dakin-u yeke*
그後에 第四 世에 있어서의 大
- (13) *ejen nayiraltu tüb degetü*²³⁾ *qayan tere*
主上 雍正 皇帝가 그것
- (14) *ber guwan ding poo šan bkıwang īi*
을 灌 頂 普 善 廣 慈
- (15) *guweši busu nere lıang skiy-a qutuɣ tu*
國師 別 名 章 嘉 庫圖克圖
- (16) *degetü boγda tegünü kbum jarliy-i*
至 聖이 그의 (佛經) 을

22) 康熙帝：清四代 聖祖仁皇帝，1662年~1772年 사이 六十一年間을 帝位에 在位했던 康熙皇帝.

23) 雍正帝：清五代 世宗憲皇帝，1722年~1735年 사이 在位.

- (17) *mongγol kelen iyer orčiyolju keb*
 蒙古 語 로 번역하여 製版
- (18) *bayiγologyad mongγol ulus tur sutur*
 刊行하고 蒙古 國 에 經書와
- (19) *darnis-un degetü ubadis-i üjeküi*
 咒文 의 尊貴한 說教를 읽게 할
- (20) *γaγča nidun medü bolγan jökiyabai ;*
 唯一한 眼目 처럼 되게해서 出版했다.
- (21) *qoyatuγar ; üsüg-ün ilγal nomlaqui dur*
 第二章 ; 文字의 區分과 읽을 때의
- (22) *γurban ; takil ügülel kiged botatu ba*
 三項이 있는데 基本字와 補充字와
- (23) *segül bolai ; angq-a anu ; boγda čoyis*
 接尾字이다. 最初에 聖
- (24) *kii gündi ĩir manĭuširi kiged saw-a*
 曼殊習禮 와
- (25) *ra saw-a ti²⁴ ükin tegri dūr takil*
 가 天 神女에게 祈
- (26) *ügülegsēn očir siltayan anu üsüg*
 禱했을 때의 機會에 字
- (27) *terigüden uqayan-u jüil-i geyigülogči*
 類 理解의 種類를 子音은
- (28) *yedam burqan mün büged über iyen*
 이담 佛 같고 各字 는
- (29) *yidam bariγsan-u tula bolai ; qoyatuγar*
 이담을 維持했기 때문이다. 第二章
- (30) *tur γurban ; üsüg-i ĵasaysan yoson*
 에서 三項은 글⁽¹⁾字를 整頓한 方式

[十]

- (1) *kiged ; debisgerlekü yoson ba üsüg-ün*
 과 ⁽²⁾받침字하는 方式과 ⁽³⁾글자의

24) 人名, 本書의 著者인 듯 함.

- (2) *teyin ilʔal bolai ; angq-a anu boyda*
이와같이 區別하는 것이다. 첫째로는 聖
- (3) *ütel-e²⁵⁾ amitan-u aoqan-i arilaqu yin*
위더러가 衆生의 私慾을 깨끗이 하기
- (4) *tula ger tür oroyšan naran-u gerel dür*
위해서 室內로 들어오는 햇빛 에
- (5) *orkimjiban elgüju dotoyatu emtem-i*
袈裟를 견고 佛敎의 智德을
- (6) *üjegülüged ; a aca o, u qoyer ; e eče*
立證했고, a 에서 o와 u二字 ; e에서
- (7) *ö, ü goyar ; na ača no, nu qoyar ; ne eče*
ö, ü二字 ; na에서 no, nu 二字 ; ne 에서
- (8) *nö, nü qoyar ; ba ača bo, bu qoyar ; be*
nö, nü 二字 ; ba 에서 bo, bu 二字 ; be
- (9) *eče bö, bü qoyar ; qa ača qo, qu qoyar ;*
에서 bö, bü 二字 ; qa에서 qo, qu 二字 ;
- (10) *ke eče kö, kü qoyar ; ʔa ača ʔo, ʔu qoyar ;*
ke에서 kö, kü 二字 ; ʔa에서 ʔo, ʔu二字 ;
- (11) *ge eče gö, gü qoyar ; ma ača mo, mu qoyar ;*
ge에서 gö, gü 二字 ; ma에서 mo, mu二字 ;
- (12) *me eče mö, mü qoyar ; la ača lo, lu goyar ;*
me에서 mö, mü二字 ; la에서 lo, lu二字 ;
- (13) *le eče lö, lü qoyar ; ra ača ro, ru qoyar ;*
le에서 lö, lü二字 ; ra에서 ro, ru二字 ;
- (14) *re eče rö, rü qoyar ; sa ača so, su qoyar ;*
re에서 rö, rü二字 ; sa에서 so, su二字 ;
- (15) *se eče sö, sü qoyar ; da ača do, du ;*
se에서 sö, sü二字 ; da에서 do, du ;
- (16) *qoyar ; de eče dö, dü qoyar ; ta ača*
二字 ; de에서 dö, dü二字 ; ta에서

- (17) to, tu qoyar ; te eče tö, tü qoyar ;
do, du二字 ; te에서 tö, tü二字 ;
- (18) ja ača jo, ju qoyar ; je eče jö, jü
ja에서 jo, ju二字 ; je에서 jö, jü
- (19) qoyar ; ča ača čo, ču qoyar ; če eče
二字 ; ča에서 čo, ču二字 ; če에서
- (20) čö, čü qoyar ; ya ača yo, yu qoyar ;
čö, čü二字 ; ya에서 yo, yu二字 ;
- (21) ye eče yö, yü qoyar büged čingq-a
ye에서 yö, yü二字가 演生하고, 強音
- (22) arban dörben kiged kündüi arban dörben eče
十 四字 와 弱音 十 四字 에서
- (23) ɣusiyad ɣusiyad qobilja ju tabin juoyan üsüg
雙 雙이 곱하면 五十 六 字가
- (24) jokiyabai ; saɣarmaɣ arban dörben kiged ;
演生한다. 中性音 十 四字 와
- (25) kijayar daki qoyar-i²⁶⁾ ese qobilyaba ;
끝에 있는 二字는 곱하지 아니했다.
- (26) tere medü bügesü ijaɣor-un döčün
그와 같이 해서 原來의 四十
- (27) dörben deger-e nemebesü jaɣon üsüg
四字 에 보탠다면 一百 字가
- (28) bolai ; (第二項 補充字) oritu ača qubilyaqui dur ese
된다. 前列에서부터 곱하게 되기 때문에,
- (29) qubiyaysan anu ba(𐰽) üsüg tür degere
곱하지 않는 것은 ba字 에다가
- (30) inu qoyar čikin medü bičiged pa (𐰽) kiged ;
두 귀(耳)처럼 쓰면 pa가 되는 것과
- [十一]
- (1) tegüncilen sa(𐰽) üsüg-ün čikin dūr qoyar
그와같이 해서 sa 字의 귀에 두

26) 이는 “Wa 𐰽 : We 𐰽” 二字이다.

- (2) čig tabigad ša(ㄱ) ba ; basa jalay-a
點을 찍어서 ša가 되고, 또한 連寫로
- (3) bičiqi dur ja(ㄴ) üsüg-i ja(ㄴ) medü
쓸 때에는 ja 字를 ja 처럼
- (4) bičiged medü ügülegteküi ; ㄴ
쓰고 ja 처럼 읽는다. ja
- (5) kiged 夕 kiged ㄴ ba ㄴ ʔurban
와 pa 와 ša 와 ja의 三
- (6) üsüg-ün dörol kiged qubiyaqui anu
字의 演生 과 품하는것 은
- (7) ijayor-i dayan medegteküi ; kemegsen tere
그 由來를 可히 알 수 있으리라. 가론즉 그와
- (8) medü bugesü pa(ㄷ), pe(ㄷ), pi(ㄷ)
같으므로 pa, pe, pi
po(ㄷ), pu(ㄷ), pö(ㄷ), pü(ㄷ) ;
- (9) ša(ㄷ), še(ㄷ), ši(ㄷ), šö(ㄷ), šu(ㄷ), šö(ㄷ), šü(ㄷ)
ja(ㄷ), je(ㄷ), ji(ㄷ)
- (10) jo(ㄷ), ju(ㄷ), jö(ㄷ), jü(ㄷ)
kiged basa(ㅅ) kiged(ㅅ)
와 또한 i 와 a
- (11) yin deger-e nigen silbi bičiged 九 debisker
의 위에 一個의 脚을 쓰고 r 接尾音을
- (12) ügbesü 1 ba ; edeger lüge jayon
주면 iyar가 되고, 이들과 함께 一百
- (13) qorin ʔurban üsüg kiged ; debisker
二十 三 字가 된다. (第三項으로) 接尾字
- (14) tür dayaqui üsüg-ün ʔurban
에 後續하는 字의 三個의
- (15) orkiča²⁷⁾ bolai ; uligerlebesü tegün-e(ㅈ),
가 있다. 例를 들어 말하면 (그)에게

27) "orkiča"는 "ㄷ"字를 말하는데, 陽母音래에서는 "a"로, 陰母音 아래에서는 "e"로 發音하는데 Roma字轉寫할 때에는 반드시 -表示다음에 쓴다. ㅈ (am·a) : ㅈ (em·e)..

- (16) kiged tegün-i (ᠬᠢᠭᠡᠳ) ba ; tegün-ü (ᠲᠡᠭᠦᠨ) medü bolai ;
와 (그)를 과 (그)의 와 같은 것이다.
- (17) ᠰᠤᠰᠦᠭᠲᠤᠯᠠᠢ ᠤᠯᠤᠨ ᠪᠣᠯᠠᠭᠤ ᠠᠨᠤ
ng(ᠨ)字는 語頭字로는 되지 못하는 것은
- (18) toloyayilaju mongyol üge ülü boloyad ;
語頭に 나타나서는 蒙古語가 되지 못한다.
- (19) teyin atala sine dörögsen nilq-a yin
그렇지만 새로 出生한 嬰兒 의
- (20) dayon-u ayalaqu dur bui yin tula
목소리의 發音할 때에는 있기 때문에
- (21) debisker bolyaytaqui ; üligerlebesü
接尾音으로는 되도록 한다. 例를 들어 말하면
- (22) nilqan ing ng kemen üilekü medü bolai :
嬰兒는 ing ng 하고 우는 것과 같다.
- (23) nigen-ü debisker bolqu anu amuyulang(ᠠᠮᠤᠢᠦᠯᠠᠭ)ᠭᠢ
一個의 接尾音이 될 수 있는것은 (平穩)과
- (24) jiryalang(ᠵᠢᠷᠢᠶᠠᠯᠠᠩ)ᠭᠢ medü bolai ; qoyatuᠷar ; debiskerlekü
(安逸) 과 같은 것이다. (第二節)으로 接尾字
- (25) dūr ᠶurban ; egesig kiged geyigülügči
에는 三項이 있다. 母音과 子音
- (26) ba debiskerlekü boda tu bolai ; angq-a
과 接尾字인 實詞 이다. 第一項
- (27) anu ᠠᠨᠤ (ᠠ)(ᠨᠤ)(ᠠᠨᠤ)(ᠠᠨᠤ)(ᠠᠨᠤ)(ᠠᠨᠤ)(ᠠᠨᠤ) bolai ;
은 a, e, i, o, u, ö, ü이다.
- (28) edeger-i aq-a üsüg buyu uu eke
이들을 長字 或은 母音
- (29) üsüg kemekü bolai ; jayon-u tula kemebesü,
字 라고 稱 한다. 무슨 理由인가 말할 것 같으면,
- (30) edeger üsüg döröl iyer iyen qamiy-a
이들 字의 演生으로 해서 어디에

[十二]

- (1) bičibesü ber üges-ün eki bolqu yin tula
쓴다고 하더라도 말의 根源이 되기 때문에

- (2) teyin kemen ügülebei ; jirügen-ü tolta açā
이와 같이 稱하는 것이다. 이 「心精演義」에서
- (3) üsüg-ün aq-a anu alin bui kemebesü ;
字 의 長字 는 어느 것인가 할 것 같으면,
- (4) (ㄷ), (ㄱ), (ㄴ), (ㄹ), (ㄷ), (ㄹ), (ㄹ), doloγan döröl
a, e, i, o, u, ö, ü 七字의 演生
- (5) iyer iyen aq-a üsüg buyu kemebei ;
으로 依해서 長(母)字(音)이라고 말한다.
- (6) egesig üsüg ami ese oroγsan
母 字(音)는 生命이 없이 들어 있는
- (7) üsüg ügei bolai ; üligerlebesü(ㄷ)ᄇᄀ
字는 없 다. 例를 들어 말하면, na
- (8) (ㄷ) terigüden-i ügülekü yin çay tur
ne 等を 입을 때에는
- (9) egesig orol ügeküy-e ügüleju
母音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입지
- (10) ülü bolqu bolai ※ qoyatuyar anu ;
못하게 된다. 第二項으로는
- (11) (ㄷ) terigüden ülegsən üsüg-üd bolai ;
na 等字를 添加(子音)字들이라고 한다.
- (12) yaγon-u tula geyigülügçi kemebesü, üges
무슨 理由로 子音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言語의
- (13) ooqan-i dotorayoloγçi yin tula
形成을 明白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 (14) teyin kemen ügülebei ; egesig eçe
그렇게 稱해서 말한다. 母音 에서
- (15) qubiloγsan yoson anu ; na dur o, u üsüg
變化하는 方式 은 na 에 o, u 字의
- (16) ami oroju no, nu kiged ne dür ö, ü
生命이 加해서 no, nu가 되고, ne에 ö, ü의
- (17) ami oroju nö, nü boloγsan medü bolai, egün, iyer busud-i
生命이 加해서 nö, nü가 되는 것과 같다. 이것으로써 其他는

- (18) jisijü medegteküi ; ɣutaɣar boda tu
類推해서 可히 알 수 있다. 第三項으로 名詞의
- (19) debiskeleküi dür ɣurban ; čingɣ-a dur
接尾字 에는 三種이 있다. 陽性字에는
- (20) čingɣ-a debisker kiged kündüi dür kündüi
強音 接尾字 와 陰性字에는 弱音
- (21) debisker ba ; saɣarmay tur čingɣ-a
接尾字 와 中性字 에는 強音
- (22) kündüi gi terigün-ü üsüg iyer
弱音 을 語頭 字 로써
- (23) ilɣaqu bolai ※ angq-a anu uligerlebešu ;
區別 한다. 第一種을 例들들어 말하면,
- (24) ɭ kiged ɭ ba ; ɭ kiged ɭ ba ;
an 과 ab ; aɣ 과 am ;
- (25) ɭ kiged ɭ ba ; ɭ kiged ɭ ba ;
al 과 ar ; as 와 ad ;
- (26) ɭ kiged ɭ ba ; ɭ luy-a arban
ai 와 ao ; ang 과 열(10)
- (27) nigen dang debisker kiged ; ɭ metu
하나(1) 單 接尾字 와 ayil과 같은 것
- (28) inu dabqor debisker bolai ; terigün
은 二重 接尾字이다. 이들
- (29) üsüg čingɣ-a yin tula debisker ber
字는 強音字이기 때문에 接尾字 를
- (30) čingɣ-a debisügteküi ; debisker inu
強音字로 接尾한다. 接尾字 는

[十三]

- (1) (ɭ) derigün arban nigen üsüg bolai ;
na 等 十 二 字 이다.
- (2) qoyatuyar kündüi yin debisker inu ;
第二種의 弱音字 의 接尾字는

- (3) ʃ kiged ɸ ba ; ʃ kiged ɸ ba ; ɸ
e 와 eb ; eg 과 em ; el
- (4) kiged ɸ ; ɸ kiged ʃ ba ; ɸ kiged
과 er ; es 와 ed ; ei 와
- (5) ɸ ba ; ʃ terigüd buyu ; dabgor
eu ; eng 等이다. 二重
- (6) debisker inu eyin metü bolai ; ene čingγ-a
接尾字 는 以上과 같다. 이 強音
- (7) kündüi qoyar iyar jisijü busud-i
弱音 二種으로써 類推해서 其他의
- (8) debiskerleküi gi medegteküi ; arban nigen
接尾字 ㄱ을 알 수 있다. 十 一
- (9) debisker-ün orkiča²⁷⁾ eyin buyu ; čingγ-a
接尾字 의 (/)는 이와 같다. 強音
- (10) yin orkiča inu an-a(ɸ) ; ab-a(ɸ) ;
의 (/) 는 an-a ; ab-a ;
am-a(ɸ) ; al-a(ɸ) ; ar-a(ɸ) ;
am-a al-a ar-a
- (11) ɸ-a ; at-a ; ay-a ; aw-a ; ɸ kiged
as-a ; at-a ; ay-a ; aw-a ; ang-a 와
- (12) kündüi yin orkiča anu ; en-e(ɸ) ; eb-e(ɸ) ; em-e(ɸ)
弱音 의 (/) 는 en-e ; eb-e ; em-e
- (13) el-e ; er-e ; es-e ; et-e ; ey-e ; ew-e ; eng-e
el-e ; er-e ; es-e ; et-e ; ey-e ; ew-e ; eng-e
- (14) metü buyu ; ene qoyar busud-un orkiča gi
와 같다. 이 二種類로써 其他의 (/)를
- (15) medegteküi ※ basa orkiča anu an-u(ɸ)
可히 알 수 있다. 또한 (/)는 an-u
- (16) an-i(ɸ) kiged en-ü(ɸ), en-i(ɸ), metü egün iyer
an-i 와 en-ü en-i 와 같고 이것으로써
- (17) busud-un debisker-ün orkiča gi medegteküi ;
其他의 接尾字의 (/)를 類推하시라.

- (18) *γutayar sayarmay anu uligerlebesü*
 第三種으로는 中性을 例를들어보면
- (19) *ersü dür er-e ersü kiged em-e ersü*
 中性에는 陽 中性과 陰 中性
- (20) *qoyar bui metü; yerü te ei(丿) terigüden*
 二種이 있다. 通常에 ei 等
- (21) *arban dörben ersü üsüg-i orbaqu*
 十 四 中性字를 轉變的
- (22) *ersü kememü; yaγon-u tula kemebesü;*
 中性이라고 한다. 무슨 理由인가 하면
- (23) *orbaqu ersü inu sarayin qayas tur*
 轉變的 中性은 每月의 半分 에는
- (24) *er-e kiged; sarayin qayas tur em-e*
 男性과 每月의 半分 에는 女性이
- (25) *bolqu metü; arban dörben ersü üsüg*
 되는 것과 같이 十 四 中性字
- (26) *edeger inu; qataqu toloyai luy-a*
 이들은 強音 字頭와
- (27) *tosiyabasu er-e ersü kiged kündüi*
 만나면 陽性 中性, 弱音
- (28) *toloyai luy-a oçirabasu em-e orsü*
 字頭와 만나면 陰性 中性
- (29) *bolqu bülüge; uligerlebesü abisir(ㄷ)*
 으로 된다. 例를 들어 말하면
- (30) *kiged egesig(ㄷ) metü ba jarliγ(ㄷ) kiged*
 과 과 같은 것이고 과

[十四]

- (1) *jarliγ(ㄷ) metü bolai* ※ *γutayar; teyin*
 과 같은 것이다. 第三章; 이와 같은
- (2) *ilyal anu dayotaqui teyin ilyal*
 區別은 發音할 때에 이와같은 區別

- (3) *luγ-a naiman bülüge ; alin kemebesü* “ay-a
과 함께 八種이 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아야!
- (4) *köbegün” kemekü metü kiged ; “oo teyin*
아들아!”라고 하는 것 같은 것과, “오! 그럴것
- (5) *bügesü” kemeḡsen metü dayataqui teyin*
같으면”이라고 하는 것 같은 發音할 때에 이와 같은
- (6) *ilγal bolai ; busu doloγan teyin ilγal*
區別이 있다. 다른 七種도 이와같은 區別
- (7) *ača angg-a teyin ilγal anu ; “burqan”*
에서 (第一項)의 區別은 名詞인데 「佛」
- (8) *kiged “bodhi süḡ” ba “širawang”*
과 「菩提佛」 과 「却獄」
- (9) *kiged “pridige” ba ; “mür” kiged “ür-e”*
과 「餓鬼」 와 「踪跡」 과 「子孫, 種」
- (10) *ba “tegrī” kiged “kümün” ba ; “asurī”*
와 「하늘」 과 「사람」 과 「阿修羅」
- (11) *kiged “adoγusun” ba ; “birid” kiged*
와 「家畜」 과 「地獄門守餓鬼」와
- (12) *“tamo” ba “ger” kiged “baγan-a” ba “idegen”*
「地獄」과 「집」 과 「기둥, 支柱」와 「食物」
- (13) *kiged “omtaγan” terigüden alin-u ner-e*
과 「飲料」 等等 무슨 「이름」(名詞)을
- (14) *γarabsu anggan-u teyin ilγal bolai ;*
發音하던지 第一項의 이러한 區分(名詞)에 屬한다.
- (15) *yoγon-u tula anggan-u teyin ilγal*
무슨 理由로 第一項의 이런 區分인가
- (16) *kemebesü ; ċinar tedüyigen-i üjegülügsen*
말한다면, 그 性質 只만을 觀察했기
- (17) *tula bolai ; ※ qoyatuγar ; teyin ilγal*
때문이다. 第二項(動詞) ; 이와 같은 區分
- (18) *anu üiles-i üjegülügsen bülüge ;*
은 行爲를 叙述한 것 이다.

- (19) *üligerlebesü* “*dorona odoju*” ; “*doron-a*
 예를 들어 말하면 「東方으로 떠나서」; 「東方으로
- (20) *odobai* “*Kiged*” *oron-a jüg tür*
 떠났다]와 「地方쪽으로
- (21) *odoju odoysan*” ba “*tende odoju* ;
 떠나서 滞在했다]와 「그곳을 떠나서」,
- (22) “*tegün dür odoysan*” *metü bülüge* ;
 「그곳에서 滞在했다]와 같은 것이다.
- (23) *yabuqu üile kiged kürügsen üile gi*
 「行動할 일」과 「到達할 일」을
- (24) *üjegülügsen bolai* ; ※
 叙述한 것이다.
- (25) *γutayar* ; *teyin ilγalanu* “*burqan*
 第三項 그와같은 區分은 「佛은
- (26) *nigülesküi ber amitan-i üjebei* “*Kiged* ;
 慈悲心으로써 衆生을 觀臨했다]와
- (27) “*merged bilig iyer ilγaysan*” ba “*süke*
 「賢人들은 智慧로써 判別했다]와 「도끼(斧)
- (28) “*ber modon-i oγtalγysan* “*Kiged* ; “*Süke*”
 로 나무를 쫓다(切斷했다)와 「도끼(斧)
- (29) *iyer oγtalqu*” ba “*baγsi ber*
 로 쪼개다]와 「先生 이
- (30) *nomlaγsan*” *Kiged* “*šabi ber sonosoγsan*”
 講했다] 와 「學生 이 聽講했다.]

[十五]

- (1) *bülüge yaγon-u tula γutayar*
 이다. 무슨 理由로 第三項의
- (2) *teyin ilγal kemebesü üiledugči gi*
 이와같은 區分인가 하면 動作者를
- (3) *üjegülügsen bolai* ; *γutayar ilγal-un*
 叙述한 것이다. 第三項의 區分の

- (4) uiles tür debisker ügei dür “**ᄃ**”
動作 에 接尾字가 없는 것에 “ber”
- (5) kiged ; debisker tei dür “**ᄃ**” bičiku
와 接尾字가 있는 것에 “iyer”를 쓰는 것
- (6) bolai²⁹⁾ ; ※ dötüger ; teyin ilyal
이다. 第四項 ; 이와같은 區分
- (7) anu “burqan dur mürgümü” ; “γoyilinči
은 「佛 에게 拜禮할 것」 「乞人
- (8) dur idegen üg” ; “bodhi süg tür
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 , 「菩提佛에게
- (9) takil irekü” ; “ebedčiten-e em üg” ;
祈禱하러 올 것」, 「病者에게 藥을 주어라 !」 ;
- (10) “qomoy aiman dur tusalaqu yin tala”
「모든 衆生 에게 補益하기 위해서」
- (11) kiged “tariyan dur usu tataqu” ba
와 「田地 에 물을 끌어드릴 것」과
- (12) “üglige yin ejed tür üljeitu
「施 主들 에게 幸福있도록
- (13) boltuγai” medü bülüge ; yaγon-u
하시라 !」와 같은 것이다. 무슨
- (14) tula dötüger teyin ilyal kemebesü ;
理由로 第四項이 이와 같이 區分한가 한면
- (15) Kereg-i üjegülügsen tula bolai ※
일의 (指示, 命令)을 叙述하기 때문이다.
- (16) tabtuγar teyin ilyal anu ; “nigülesküi
第五項 : 이와같은 區分은 「慈悲
- (17) eče ülemji sedkin dörökü” ; “doron-a
에서 智 慧가 發生한다.」 ; 「東方
- (18) ača naran orγoqu” ; “siltarān ača
에서 해는 떠오른다, 솟는다.」 ; 「原因에서
-
- 28) 卽 윗 語彙의 끝음이 子音으로 끝나는가, 또는 母音으로 끝나는가에 따라
서 區分되는데, 子音으로 끝나는 때에는 “iyer”를, 母音으로 끝날 때에는
“ber”를 使用하고, 그 글字는 差異가 甚하지만 그 機能은 같다.

- (19) *ür-e dörökü* ; “ger eče ed bary-a
結果가 發生한다.」; 「집에서부터 寶貝는
- (20) *γaryaqu* ; “γajar ača noγoγ-a orγoqu” ;
「産出한다.」; 「地上에서 野菜는 生長한다.」;
- (21) “degetü nom eče sayin čiyolγan γarqu”
「佛 經에서부터 善 盟은 出現한다.」
- (22) *medü bolai* ; *yaγon-u tula tabtayar*
와 같다. 무슨 理由로 第五項이
- (23) *teyin ilγal kemebesü* ; *γarqu oγ-i*
이와같이 區分한가 하면 發生할 根源(原因)을
- (24) *üjegülügen bolai* ; ※
叙述한 것 이다.
- (25) *jiryotuyar* ; *teyin ilγal anu* “burqan-u
第六項 ; (修飾詞) 그의 區分은 「佛의
- (26) *γučin qoyar laγšan nayan sayin nayiraγ*”
三十 二 戒와 八十 善 緣」
- (27) *kiged* ; “ayiladqu yin oron” ba “yabuqu
과 「明察 의 對象」과 「行爲
- (28) *yin nutuly-a*” *kiged* “kümün-ü toloyai”
의 目標」 와 「사람의 머리」
- (29) *ba* ; “amitan jiryaqu kemebesü γurban
와 「衆生이 逸樂하려 한다면 三
- (30) *erden dür mürgügen oi*” *bolai* ;
寶 에 拜禮할 것이다.」이다.

[十六]

- (1) *yaγon-n tula jiryotuyar teyin ilγal*
무슨 理由로 第六項은 이런 區分인가
- (2) *kemebesü* ; *odq-a gi qolbaγsan-u tula*
할 것 같으면, 文章을 連繫하기 때문에 修飾詞
- (3) *bolai* ; ※ *dolotuyar* ; *teyin ilγal anu*
이다. 第七項 ; 이와같은 區分은

- (4) “burqan-a ayiladquï ürüsiyekü bui” ;
「佛에게는 祈禱하는 慈愛가 있다.」
- (5) “burqan dur nükür bui” ; “dalai dur
「佛에게는 信徒가 있다.」, 「大海에는
- (6) tindamuni bui” ; “oytarγoi dur naran
如意寶가 있다.」, 「하늘 에는 해와
- (7) sura bui” ; “delekei dūr jimis tariyan bui” ;
달이 있다.」, 「大陸에는 果實과 穀物이 있다.」
- (8) kemekü medü bulüge ; yaγon-u tula
라고 하는 것과 같다. 무슨 理由에서
- (9) delotuyar teyin ilγal kemebesü ; bui
第七項 과 같은 區分인가 할 것 같으면, 所在
- (10) oron-i üjegülügen tula bolai ※ doloγan
方位處所를 叙述하기 때문이다. 第八項 ; 以上 七項의
- (11) teyin ilγal-i nigen odaq-a dur nayirayolqu
이와같은 區分을 一 文章으로 綜合하면
- (12) eyin bulüge ; “Sayin kümün inu jüg
이와같이 된다. 「善 人 은 바른方向
- (13) tür yabubasu ; uqayan iyar sayin mayu gi
으로 行한다면, 智慧 로써 善 惡 을
- (14) medeged ; blam-a dur iyan mürγüjü bürün ;
推知하고 喇嘛 에게 는 拜禮하고,
- (15) blam-a aça sayin uqayan-i abuyad ;
喇嘛 에게서 善 智를 얻고,
- (16) über-ün erdem-ün čimeg bolγaju ;
自身の 戒 律이 되게 하여,
- (17) sanal dur erdem nüγüd bui bulüge “kemekü
內心 에 德慧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과
- (18) medü bulüge ※ egün iyer jisijü yeke
같이 된다. 이것 으로 類推해서 大
- (19) sutur-i ungsiqui dur teyin ilγal
經書를 읽을 때에는 이와같은 區分을

- (20) *ile γaruγsan ba ; qoriyaγsan-i medegteküi ;*
 分明하게 顯出하는 것과 壓縮된 것을 알지어다.
- (21) *qoriyaγsan anu ilaju tegüs nügčigsen²⁹⁾*
 壓縮된 것은 (「佛의 尊稱」)“부처님이
- (22) *jarliy bolorun kemeqüi medü dür ; ilaju*
 말씀하시되” 라고 하는 것 같은 것에는
- (23) *tegüs nüčigsen iyer jarliy bolorun ;*
 “「부처님의 이름」으로 말씀하시되”
- (24) *kemegsen-i qoriyaγsan bolai ; yerü üsüg-ün*
 라고 하는 것을 壓縮된 것이다. ⊖ 通常字의
- (25) *nügüčel kemebesü ; luy-a, lüg-e³⁰⁾ kiged*
 接續詞라는 것은 (一와[과]) 와
- (26) *ba ba ; -qu, -kü ; ta, te ; dur, dür ;*
 (-와)와 ; (-라고 하는 것) ; (-에, -에로) ; (-에, ; -에로) ;
- (27) *tur, tür ; ber, bar ; iyar, iyer ; eče*
 (-에, -에로) ; (-로써) (-로써), (-에서부터)
- (28) *yin kiged ; buyu ; yaγun-u tula nügüčel*
 의 (와)와 같다. 무슨 理由로 接續詞
- (29) *kemebesü ; üsüg qoriyaγju nere bolqu*
 이라고 하는가 하면, 語彙가 合併이 되어서 名詞가 되는 것,
- (30) *nere qoriyaγju üge bolqu ; üges iyer*
 名詞가 合併되어서 語가 되는 것, 語로써

[十七]

- (1) *odq-a gi üjegülkü bülüge ; odq-a gi*
 文章 을 叙述하는 것이다. ⊖ 文章을
- (2) *üjegülkü tere čay tur ; nügüčel keregtei*
 叙述할 그 때 에 接續詞가 使用되게
- (3) *bolai ; kerkijü nügüčekü kemebesü ; “burqan*
 된다. 어찌해서 接續하는 것인가 할 것 같으면 「佛

29) 이 三字가 合해서 「佛」의 尊稱이 된다. 따라서 三字가 壓縮되어서 한 概
 念을 表示하게 되는 것을 말함.

30) “Luy-a, lüge”는 連結語로서 「-와, -과」를 意味함.

- (4) ba[ba]" kemeküi dür čingγ-a nüğüčel kiged
과]라고 말할 때에는 陽性 接續詞 이고
- (5) "nigen be[be]" kemeküi dür kündüi nüğüčel
「하나 와」 라고 말할 때에는 陰性 接續詞
- (6) ügkü buyu ; tegünčilen qoγosun "-kü"
로 發音한다. 이와같이 해서 「空 -kü」
- (7) kiged tegünčilen "qu" ba ; "burqan dur" ;
와 이와같이 해서 「-qu」와 「佛 에게」
- (8) kiged "tegün dür" ba ; "qamoγ tur"
와 「그 에게」와 「모든것 에게」
- (9) kiged "merged tür" ba "burqan luγ-a"
와 「賢者 에게」와 「부처 와」
- (10) kiged "tegün lüg-e" ba "toli bar"
와 「그 와」 와 「거울로써」
- (11) kiged ; "tulayan iyar" ba "terekü ber" kiged
와 「溫氣 로써」와 「그와같은 것으로써」과
- (12) "tegün iyer" ba "γurban la" kiged "nigen de"
「그 로써」와 「三 次」와 「一次」
- (13) ba "eče" inu debisker ügei yin segül dür
와 ㊸「에서」는 接尾字가 없는 語尾에
- (14) bičikü bügesü ; e() toloyai metü daγodan
쓸 때에는 e 語頭字 처럼 發音하고
- (15) tere čaγ tur jalγaju ülü bičikü³¹⁾
그 때 에 接續해서는 쓰지 않는다.
- (16) üliγerlebesü "tendeče³²⁾" metü bolai ;
예를들어 말하면 「거기에서」와 같다.
- (17) debisker tei yin segül dür bičikü
接尾字가 있는 語尾에 쓸
- (18) čaγ tur "eče" yin terigün ačoy-i
때 에는 eče 의 頭音의 發音을

31) 말하자면 "eče" 그대로 發音한다.

32) "tende eče"는 "tendeče"로 읽어서 "e" 母音 하나를 省略시킨다.

- (19) debisker-ün erkeber qubilyaqu büged
接尾字의 權限을 變化시키 고
- (20) “tegün eče” kemeküi dür neče kemen dayutaqu
「그 에게서」라고 할 때에는 「neče」라고 發音하는 것
- (21) bolai ; egüber jisijü busu debisker tür
이다. 이것을 類推해서 다른 接尾字에도
- (22) medegteküi ; “bolqu yin” kiged “kemekü yin”
可知할지니라. ⊕ 「bolqu yin」과 “kemekü yin”
- (23) metü ber čingy-a sula gi ilγaytaqui ;
과 같은 것은 陽과 陰을 區別해서 強弱으로 發音할지니라.
- (24) üges-ün ayalaqu anu *anu* ba *inu* ba ;
⊕ 語言의 發音 에는 “anu”와 “inu”와
- (25) Kiged ba *büged* ba *bürün* ele *bülüge* ;
(와) 와 { ……하고 } 와 (……하고) 모두 (……이다.)
{ ……하지만 } 와 (……있고)
{ ……하면서 }
- (26) *bolai* ; *buyu* ; *bolbai* ; *bolturai* ; *edeger*
(-이이다) (-이다) (-가되었다) (-도록하시라) 等等
(-는 것이다) (-것이다)
(-그렇다) (-그렇다)
- (27) bolai ; edeger üges-ün odq-a be
이다. 이들 語言의 文章을
- (28) üges-ün cimeg boqui anu ; “*nomlaǰu*
語言의 修飾이 되게 하는 것은 「講經
- (29) *bürün*” ; “*tegüber bügesü ele*” metü kiged ;
하되 ; 「그렇다고 한다면」과 같은 것과
- (30) ilyaqu üge inu *anu inu* kiged
區別할 語는 “anu”, “inu”와

〔十八〕

- (1) üligerlebesü “*burqan anu*” ; “*tere inu*” metü
예를들면 「佛은」 「그것은」과 같
- (2) bülüge ; basa *orkiča*²⁷⁾ ber bolqui anu
다. 또한 (√) 가 될 것은

- (3) “tere üges-i” ; “tegün-i” ; “tere kiged-i”
「그 말을」 「그것을」 「그것과를」
- (4) “tere büged-i” ; metü bolai ; basa ene
「그 와 를」 과 같은 것이다. 또한 「이」와
- (5) tere inu bada tu jıyaqu üge bolai ;
「저」는 事物을 指示하는 語이다.
- (6) qoriyaqu üge inu ; “ııy-a, lüg-e”
合併 語 는 (ııy-a)와 (lüg-e)
- (7) qoyar büged ; ııyaqu üge inu
二語이고, 區分 語 는
- (8) “kiged, ba” qoyar bolai ; “ber iyer” kiged
(kiged)와 (ba)의 二語이다. ⊗(ber iyer)와
- (9) “eče” inu qoriyaqu üge bolqu anu
(eče)가 合併 語가 되는 것은
- (10) ülıgerlebesü ; “nomıaysan iyar bar” kemeküı
예를 들어 말하면, 「그가 講義했던 것으로」라고 하는 것
- (11) dür ; “ber” inu qoriyaqu kiged ; očir
에, (ber)는 合併한 것이고, 「原
- (12) siltayan tegüber iyer kemeküı dür ; “ıyer”
「因 그것으로써」 라고 하는 말어 (ıyer)
- (13) inu qoriyaqu bolai ; “ıyer” üges-ün
는 合併한 것이다. (ıyer)가 語의
- (14) ıool bolqui anu ; “döröl iyer iyen”
主가 되는것 은 「그의 出生으로 依해서」
- (15) kemeküı metü bolai ; basa “ber” inu
라고 하는 것과 같다. 또한 (ber)는
- (16) očir siltayan kiged čimeg bolqui
「原因」 과 「修飾」이 되는 것은
- (17) anu ; ülıgerlebesü “tegüber bügesü
예를 들어 말하면 「모두 그와 같다고
- (18) ele” ; metü očir siltayan kiged “qamoy
한다면」과 같은 「原因」 과 「모든

- (19) burqan ber ügede boloyad” kemekü metü
 佛이 來臨하시고」 라고 하는 것 같은
- (20) qoriyaqu kiged “belge bilig-ün γal iyar
 「合併」 과 「智慧의 불로써
- (21) tülebesü ber nigülesküi dörömu” Kemekü
 태운다면 은 同情心이 發生하리라.」라고 하는 것
- (22) metü inu ülü jokiltuqui üges-ün
 같은 것은 調和할 수 없는 語의
- (23) čimeg kiged ; “naran-u mandal delekei gi
 「修飾」과 「太陽의 祭壇이 大陸을
- (24) geyigülbesü ber lingyuw-a yin sisiglig-i
 빛내게 한다면은 蓮花 의 花園을
- (25) telgeregülügen” metü yin ber inu jokiltuqui
 滿發하게 했다.」 와 같은 것의 (ber)는 調和되는
- (26) čimeg bolai ; ⊙ ülegtel tü üge inu
 「修飾」이다 ; 未完結 語는
- (27) nomlaysan “büged ; tere “büged” ; ene metü
 「講義하 고」 「그렇지만」 「이와 같
- (28) “büged” ; “sanayad”, sedkiged metü bolai ;
 고」 「생각하고, 생각하고」와 같 다.
- (29) yaγun-u tula ülegtel tü üge” kemebesü
 무슨 理由로 未完結 語라고 하는가 하면
- (30) nomlaqu odq-a ese dayosoγsan-u
 論하는 文章이 完結되지 안했기

[十九]

- (1) tula bolai ; ⊗ bülüge, bolai, buyu edeger
 때문이다. bülüge와 bolai와 buyu 이들語
- (2) inu tegüsügen üge büged üliγerlebesü
 는 完結 語이고, 例를 들어 말하면,
- (3) “tere bolai” ; “mün bülüge” ; “eyin buyu” metü
 「그다, 그것이다.」, 「같았다, 그렇다.」, 「이와같다」와 같은것은

- (4) bolai ; ㊸ “*boltuɣai*” anu *asaɣoqu üge*
(完結語)이다. 「……되도록하라! ……하고 싶다」는 質問(要請) 語
- (5) Kiged ; *irügekü üge bolomu* ; *üligerlebesü* ;
이고, (또한) 祀願語이다. 例를 들면
- (6) “*tan-u ügüleksen üge teyimü boltuɣai*” ;
「당신들의 말한 말 그대로 되도록 하시라!」
- (7) *egün-i ügüleküi bui kemeküi dür*
이를 말할 때에는
- (8) *asaɣoɣsan kiged “burqun-u qutuɣ-i olqu*
「質問(要請)과 「부처의 祝福을 얻으
- (9) *boltuɣai*” ; *kemekü metü irügekü üge bolai* ;
시라!」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것은 祀願語이다.
- (10) ㊹ “*eče*” inu *qoriyaqu üge bolqu gi*
eče 가 縮壓 語가 되는 것을
- (11) *üligerlebesü* ; “*ergim eče šabta kürtal-a*
例를 들면 「崇高에서부터 不潔物에 이르기까지
- (12) *taki*” ; *Kemekü metü ber üleju medegteküi* ;
에 있다.」라고 하는 같은 것으로 餘他를 推知하시라!
- (13) ㊺ *basa busu anu qubsurabasu asaɣuqu*
또한 連合하면 質問하는 것이
- (14) *bolqu büged* ; “*tere buyu uu?*” “*eyin buyu*
되 고 「그것인가? 그 사람인가?」 「이와 같은
- (15) *uu?*” *metü bolai* ; *basa ülegtel tü üge*
가?」와 같 다. ㊻ 또한 殘餘 語
- (16) inu “*ileju*” *kiged “sügüdcü” ba “ilaju*
는 「남아서」와 「跪坐拜禮하야」와 「區分하야」等
- (17) *kiged üligerlebesü “ilaju tegüs nügcigsen*
語인데, 例를 들면, 「부처님의 尊稱」
- (18) *kiged “burqan dörben simnos ača ilaju*
과 「부처가 四 妖怪에게서 勝利하야
- (19) *nom-un kürtün-i erkigülbei” metü bolai* ;
佛經의 車輪 을 回轉시켰다.」와 같다.

- (20) ⑥edüge “tere ču” kiged “tere či” kemekü yin
이제 “tere ču”와 “tere či”라고 하는 것
- (21) inu üsüg-ün nügüčel dür Coyis kii
은 字母의 連係 에는
- (22) gündi iir-un jokiyaysan “jirügen-ü
의 編作한 「心精
- (23) tolta” kiged bandida kun dke-e gündi
演義」와 班第達
- (24) tar-un jokiyaysan “jirügen-ü tolta”
의 編作한 「心精演義」
- (25) qoyayola alin dur ber ügei yin tula
二冊에는 어디에도 그 記錄이 없기 때문에
- (26) qoor-a metü tabčiyteküi ; üsüg
여기서는 除外할 수밖에 없다. (第三節 第一項) 字母를
- (27) jalγan bičiküi dür čingγ-a kündüi yin
連 寫 할 때에는 強 弱 의
- (28) ilγal temdeγ ügei yin tula yakin
區分 記號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 (29) ilyaqu kemebesü ; dumtatu sula ber
區分하는가 하면, 그 方法은 中間에 있는 部分으로써
- (30) eki aday-i medeküi Kiged ; altarsiγsan iyar ;
그 首尾를 알 수 있고, 또한 그 읽는 慣習으로도

〔二十〕

- (1) medeküi ba ; debisker iyer medeküi bolai ;
알 수 있으며, 또한 接尾字로써도 알 수 있다.
- (2) angq-a anu degetü kemeküi dür dumtatu
① 첫번째로는 “degetü”($\frac{1}{2}$)라는 字에는 中間에 있는
- (3) kündüi yin küčün iyer terigün aday
陰性字의 힘(모습)으로 首 尾
- (4) qoyar”un kündüi gi medekü ; altarsiγsan
二部分의 陰性임을 알 수 있다. ② 두번째로는 發音의 慣習

- (5) anu “tere metü” kiged ; “tere burqan” kemekü
은 “tere metü”(그와 같은)와 “tere burqan”(그 부처)라고 할
- (6) metü dür “tere” kemekü kündüi bolqui anu
때에 “tere”라는 자가 陰性이 된다는 것은
- (7) altarsiysan-u bolai ※ y-e(了) inu debisker-ün
發音慣習에 依한다. ㊸ 세번째로 y-e는 接尾字의
- (8) toloyai bolqui dur ; bukuli bičikü
字頭가 될 때에는 完全하게 쓸 것(1)
- (9) kiged dang ba debisker-ün segül dür
과 單一의 文字와 接尾字의 끝에서는
- (10) tasolju bičigteküi ; uligerlebesü
斷切해서 쓰게 된다(了) 예를 들면,
- (11) “jedker” kiged “jarlig” metü ba ; y-a
(1) 와 (1)과 같이 語頭に 쓰는 것과(了)
- (12) eče qubiloysan kiged ; “bolomu y-a”
에서 變化한 것과 (了)
- (13) “ken y-e” metü ba ; debisker čingγ-a yin
(了)처럼 語尾에 쓰는 것과 接尾字가 陽性일
- (14) üy-e dür “ya” metü dayotaytaqui ※
때에는 (1)처럼 發音하게 된다.
- (15) basa odqan-un küčüber ilyaqui anu
㊸ 네번째로 또한 文章의 힘(모습)으로 區分하는 方法은
- (16) “burqan-u nöğüd” kemeküi dür n(1) yin
「諸 佛」 할 때에는 n組 의
- (17) döröl-ün jiryotuyar (nö) Kiged “tere nügüd”
演生の 第六字 (了)이고, 「그들, 그 친구들」
- (18) Kemeküi dür n(1) yin döröl-ün doloγatuyar (nü)
라고 할 때에는 n組의 演生の 第七字 (nü)
- (19) bolai ; “Küke üngge” Kemeküi dür k(2) yin
이다. 「靑 色」이라고 할 때에는 (k) 의
- (20) döröl-ün doloγatuyar Kiged “ekener-ün
演生の 第七字(kü)이고 ; 「婦人들의

- (21) Köke” kemekü k(乙) yin döröl-ün jiryotuyar
 青春」라고 할 때는 k의 演生の 第六字(kö)
- (22) bolai ; basa “burqan sem sayubai” kemeküi
 이다. 또한 「부처님이 靜座默考하신다.」라고 할
- (23) dür sem anu s(乙) yin döröl-ün
 때에 “sem”은 s 의 演生の
- (24) qoyatuyar kiged “sam iyar samlaqu”
 第二字(se)이고 「빛(櫛)으로 머리빛는다」
- (25) kemekü dür čingγ-a bolai ; nö(丿) nü (丿)
 할 때에는 强(陽)음(sa)이다. ⊕ 連書時에는 省略하는 部分이
 있는데 (nö)와 (nü)
- (26) terigüden qorin jiryoyan segül tü
 等の 二十 六個의 有尾
- (27) üsüg-üd-i üges-ün ekil-e bolbasu
 字 들이 語彙들의 語頭部分에 있게 되면
- (28) segül tei bičiged ; dumta door-a
 꼬리가 있게 쓰고, 中間이나 字尾에
- (29) bolbasu segül ügei bičigteküi ;
 있게 되면 꼬리 없이 쓰게 된다.
- (30) üligerlebesü “burqan-u nögüd” kiged
 예를 들어 말하면 「諸佛」과

〔二十一〕

- (1) “sain ünür ünüsküi” kemeküi metü jisiju
 「좋은 냄새를 맡다」라고 하는 것 같은 것으로 類推하여
- (2) medegteküi ※ basa eče salyaqui üge
 可知할지라. ⊕ 또한 “eče”를 區別하는 語가
- (3) bolqui anu “tegüče tabun anu orida
 되는 것은 「그들 中에서 5人是 미리(먼저)
- (4) ber oroqu” kiged “mongyol-un jayon qorin
 들어갈 것이다」와 「蒙古의 一百二十
- (5) γurban üsüg eče arban nigen inu
 三 字 中에서 十 一 字 는

- (6) debisker bolqu buyu” ; egün iyer jisiju
接尾字가 된다.」 이것으로 類推해서
- (7) medegteküi ※ mongyol-un jayon qorin
可知할지이다. ㊸ 蒙古의 一百 二十
- (8) γurban üsüg bui bügetele ; Caqar-un
三 字가 있었는데, 察哈爾의
- (9) üy-e dür bke-e khior orčiyolqui
時代に 甘珠爾經을 翻譯할
- (10) dur bandida Kun dke-e gündi tar
때에 班第達(學者) 는
- (11) “sin-e jirügen-ü tolta” γarγaju Coyis kii
「新 心情 演義」를 著述하고
- (12) gündi tar-un jokiyaysan jayon naiman
의 編作한 一百 八
- (13) üsüg kemegsen bülüge ; tere inu
字 라고 稱했었다. 그것은
- (14) ijayor-un jayon üsüg-ün deger-e
原來的 一百 字에 다가
- (15) (ㄴ) yin döröl(ㄴ ㄹ ㄷ ㄱ ㅈ ㅊ)
ja 의 演生 (je, ji, jo, ju, jö, ju)
- (16) jiyoyan kiged ; Pa,(ㄷ), ša(ㄷ), qoyar-i nemejü naiman,
六字 와 p, š 二字를 보태서 八字를
- (17) bolyaysan buyu uu ; esebesü ša(ㄷ), ng(ㄷ) qoyar-i
되게 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或은 ša, ng 二字를
- (18) nemejü jayon naiman bolyaysan bayinam ;
增加해서 一百 八字가 되게 했던 것이리라.
- (19) yajon-u tula kemebesü ; mongyol nom dur
무슨 理由인가 하면 蒙古의 經典 에
- (20) edeger güičekü kemen sedkigsen bayinam ;
이들을 補足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리라.
- (21) teyin atal-a Coyis kii gündi tar-un
한便으로는 의

- (22) *γaryγsan* (ᠵᠠ) *yin döröl kiged* (ᠵᠢ) *yin*
 作成한 (ša) 의 演生 과 (pa) 의
- (23) *döröl qoyar ača jirγoyad jirγoyad*
 演生の 二者에서 六個 六個를
- (24) *orkiγsan bolai* ; *edüged tür erte*
 廢止했던 것이다. 現在에는 옛날
- (25) *bičigsen sutur tur edeger üsüg*
 쓰여졌던 經書에는 이들 字가
- (26) *ügei болоγsan siltγan anu tere medü*
 없게 된 理由 는 그와 같
- (27) *bolai* ※ *pa* (ᠵᠢ) *yin döröl nere bolqu anu*
 다. ◎ (P) 의 演生字 名이 되는 것은
- (28) *üligerlebesü* ; “*jirügen pal pal küdülbe*”
 例를 들면 「心臟이 pal pal 뛰었다.」
- (29) *kiged “ümekei po”*
 와 「惡臭 포-」
- (30) *kiged “γal-i po pu geju üliy-e” kemerü*
 와 「불이 po pu하고 탄다.」라고 하는 것,

[二十二]

- (1) *edeger üges eduged-ün mongγol ulus tur*
 이들 語들은 現在의 蒙古 國에서
- (2) *Kelelčekü bui bayinam* ; *teyin atala nem-un*
 使用되고 있 다. 그렇지만 經
- (3) *ügen dür oroqu čoqaγ-un tula*
 文 에는 使用된 것은 稀貴하기 때문에
- (4) *orkiγsan bayinam kemen sedkimü* ; *teyin atal-a*
 廢止한 것이었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 (5) *tübed-ün kelen mongγol dur orčiyolju*
 西藏 語를 蒙古語 로 翻譯되어서는
- (6) *ülü bolqu buyu uu* ; *orčiyolbasu*
 안된다는 것인가? 翻譯해서는

- (7) *ülü medekü jarim-ud-i bičiküi dūr*
 理解할 수 없는 許多한 內容들이 써있을 때에
- (8) *kereg tei yin tula pa(步) yin dōröl-i*
 有用하기 때문에 pa字의 演生을
- (9) *todorqay-a γaryaju tübed ner-e*
 分明하게 組成하여 西藏 名字를
- (10) *bičiküi dūr uligerlebesü “po čongnw-a” ;*
 쓸 때에는 例를 들면 ; (不明)
- (11) *kiged ; püg bib-a ba da puǰang*
 과 (不明) 와 (不明)
- (12) *ba pa kiged kpan mting ba kemekü*
 과 (不明) 과 (不明) 과 라고 하는 것
- (13) *metü gi bičiküi dūr kereglegteküi ; ※*
 과 같은 것을 쓸 때에 使用하게 된다.

(未完) 1985. 2. 14.

(殘餘分 ; 8面 17行)